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박준열
광주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담당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추진 배경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 교통사고 사망률 인구 100만 명당 101명으로 같은 기간 동안 유럽연합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어린이 사망사고도 예외가 아니다.

광주는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와 정부의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2022년까지 광주 교통사고 사망자를 50% 이하(2017년 117명 사망)로 감소시키기 위한 목표 달성을 위해 2018년 1월부터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을 운영하였다.

교통사고 줄이기 협업팀은 광주시·자치구·교육청·경찰청·교통공단 등 11개 기관 교통실무진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월 1회씩 정기 회의를 통해 광주시 교통사망사고 대책들을 발굴하고 있다.

협업팀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표준화,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교통법규 위반행위 합동단속,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중앙분리대 설치, 교통사고 예방 방문 교육 합동 추진, 교통사고 다발지역 단속인력 배치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협업팀 운영 이전에는 교통사고 예방 대책 대부분이 기관별 ‘칸막이 행정’으로 문제해결 능력과 행정효과가 저하되었으며, 기관별 유사 중복 사업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비효율, 기관별 정책목표에 매진되어 광주시 전체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한 정책 완성도가 부족하였다.

협업팀 운영을 통해 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중복 지출 방지 등 효율적인 재정 집행과 실무 토론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예방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었다.

* OECD 평균 대비 가장 취약한 3대 지표인 자살·교통사고·산재 사고 사망률 개선을 위한 대책



표준모델 설치 전



표준모델 설치 후

특히 지난 7월 ‘2018년도 상반기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 원을 교부받아 25개 초등학교 주변에 노란신호등 표준모델을 확대 설치하여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의 주요 내용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은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안전색(노란색) 신호등 도입 및 주변 환경과 도로 특성에 맞는 교통안전시설을 표준화한 것이다. 주요 시설물은 노란신호등, 고원식 횡단보도, 발광형 표지, 보행자 울타리, 옐로카펫, 미끄럼방지 포장 등으로 체계화되었다.

2018년 3월 광주시 내 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으며, 이후 학부모 단체와 학교 관계자들의 표준모델 확대 설치에 대한 민원이 증가

하였다. 이에 대상 초등학교를 6곳으로 확대하였으며, 16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노란신호등을 설치 완료하였다.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성과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과 지역 내 교통 관련 기관들과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통해 광주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지난해 6명에서 올해 0명으로 100% 감소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의 인지력을 높이고 사고 예방 시설을 보강한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 일명 노란신호등 표준모델이 한몫을 하였다.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은 운전자 입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강하게 인지해 ‘서행 및 안전운행’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한 시각효과가 돋보인다. 또한 고원식 횡단보도는 기존 횡

월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발생	459	30	27	45	37	44	26	36	41	52	45	34	42
	사망	6	1	0	1	0	1	1	0	0	0	2	0	0
2018	발생	337	26	27	39	33	41	29	41	28	32	24	17	
	사망	0	0	0	0	0	0	0	0	0	0	0	0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발생	24	1	1	2	3	4	3	3	3	3	0	1	0
	사망	1	0	0	0	0	0	1	0	0	0	0	0	0
2018	발생	15	0	0	0	0	2	2	4	2	1	2	2	
	사망	0	0	0	0	0	0	0	0	0	0	0	0	

단보도와 다르게 노면보다 높게, 눈에 잘 띄게 만들어 차량들의 운행속도도 시속 30km 이하로 줄이는 효과를 낸다.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광주시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표준모델의 운영과 더불어 관계 기관들과의 다양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통한 성과로 분석된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광주형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은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지자체 교통담당자 워크숍, 정부혁신 현장 토론회'에서 지자체 우수사례로 발표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시는 2020년까지 전체 156개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모든 초등학교에 표준모델이 설치되면 운전자의 시인성과 인지력이 높아지고 주정차 위반이나 과속운전 사례가 줄어들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이러한 다양한 교통안전정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교통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다치거나 희생되지 않도록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관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교통사고 Zero 도시 광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안전과 생명도 소중하다는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통해 안전한 도시 광주 만들기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